

8장

Vygotsky의 사회·문화 이론과 영어학습

기존의 과학이론이 어떤 현상을 분리하여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취했다면, Vygotsky(1896-1934)의 이론은 각각의 요소들과 이들 요소들이 인접하고 있는 다른 하위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적 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Vygotsky의 이론은 사회·문화 이론사회·문화 이론이라 하는데, 이 이론의 하위 요소에는 잠재적 발달영역(ZPD)잠재적 발달영역(ZPD, 4장 참조), 사적 발화(private speech)사적 발화(private speech), 내적 발화(inner speech)내적 발화(inner speech), 행위 이론(activity theory)행위 이론(activity theory) 등이 있다. Vygotsky의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영어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사회·문화 이론의 원리

Vygotsky에 의하면, 아동의 지적발달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적 단계(social plane)사회적 단계(social plane) 또는 인간간 단계(interpersonal plane)인간간 단계(interpersonal plane)로서 아동(학습자)과 성인(교사) 간의 정신적 매개 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 간의 정신적 상호작용이 중시되는 단계이다. 그 다음 단계는 심리적 단계(psychological plane)심리적 단계(psychological plane) 또는 인간내 단계(intrapersonal plane)인간내 단계(intrapersonal plane)로서 학습자 내부의 정신이 상호작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학습자 내부에서 이미 정립된 지식과 새롭게 받아들이는 지식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지식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는 기존 지식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구축된 지식체계를 통해서 다시 사회적 단계로 넘어간다. 사회적 단계를 통해서 새롭게 받아들이는 지식들은 학습자 내부의 심리적 단계를 통해서 다시 내재화 과정을 거친다. Vygotsky의 입장에서 학습은 벽돌쌓기처럼 새로운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상호 매개과정을 통해서 기존 지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식체계로 재편성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Vygotsky의 이론에서 언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인간의 고등정신 기능과 인간의 학습을 유도하는 매개물로 언어가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Vygotsky는 인간의 고등정신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언어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즉,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개인의 고등정신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이며, 상호작용 및 인지발달의 도구로 사용되며, 무엇보다도 사회적 단계에서 심리적 단계로 전이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내재화시키는 때

개역할을 수행한다.

Vygotsky에 의하면, 인간이 수행하는 정신능력에는 기억(memory), 주의(attention), 이성적 사고(rational thought), 의지(volition), 개념의 정립(formation of concepts) 등이 있다. 이들 정신능력은 본질적으로 생리적 단계(biological plane)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인간의 고등정신능력 발달과정에서 사회적 요인은 생리적 요인보다 더 우선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능력들이 발휘되기 위해서 학습자들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학습자를 둘러싼 외부 환경(교사, 동료, 사회적 관습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단계는 인간간 단계가 되며, 이때 학습자의 정신능력은 외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렇지만 이 단계는 학습자가 자기통제(self-regulation)와 인지적 독립(cognitive independence)을 성립해 나가는 첫 단계가 되기도 한다.

Vygotsky는 인간의 고등정신능력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기 보다는 자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심리적 단계에서 구현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단계에서 심리적 단계로 전이되는 내재화 과정은 학습자의 고등정신능력이 구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면서 기초과정이 된다. 심리적 단계에서는 이전 사회적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회적 관습 및 새로운 지식을 내재화하면서 기존 지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식체계로 전환된다. 이렇게 질적으로 다르게 재편성된 지식체계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다시 사용된다. 즉, 사회적 단계 (또는 인간간 단계)에서 심리적 단계(또는 인간내 단계)로 내재화되고, 질적으로 다르게 재편성된 지식체계는 다시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순화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순화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고등정신능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단계에서 학습자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사회적 관습 및 법규, 행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때 학습자를 둘러싼 외부환경은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습자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둘째, 학습자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관찰한 사회적 관습 및 행위,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내재화시킨다.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지식체계와 만나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식체계로 바뀌게 된다.

셋째, 학습자는 질적으로 새롭게 바뀐 지식체계를 가지고서 학습자를 둘러싼 외부환경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넷째, 학습자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관찰한 사회적 관습 및 행위,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내재화시킨다.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지식체계와 만나서 다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식체계로 바뀌게 된다.

다섯째, 학습자는 질적으로 새롭게 바뀐 지식체계를 가지고서 학습자를 둘러싼 외부환경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고등정신능력을 발전시키게 된다.)

2. 자기중심적 발화, 사적 발화, 내적 발화, 활동 이론

Vygotsky는 아동이 자신의 고유 정신세계를 형성하면서 언어가 질적으로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언어는 아동의 정신세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제시한 그림 12-1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단계에서는 자기중심적 발화(ego-centric speech) 자기중심적 발화(ego-centric speech)와 공공 발화(public speech) 공공 발화(public speech)가 사용되며, 심리적 단계에서는 사적 발화(private speech) 사적 발화(private speech)와 내적 발화(inner speech) 내적 발화(inner speech)가 사용된다.

1) 자기중심적 발화(Ego-centric Speech)와 공공 발화(Public Speech)

이 단계에서 아동은 자신을 타인처럼 간주하여 스스로에게 발화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John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동이 ‘John likes apples.’라는 발화를 했다면, 이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 유무와는 관계없이 자신에게 발화를 하는 것이다. Piaget은 이런 발화는 인지능력이 낮은 아동이 단지 미숙한 자아를 표출하는 ‘자기중심적 발화’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Vygotsky는 이러한 발화는 아동의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아동의 자아가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규제되는 증거로 보았다. 그런데 Vygotsky는 아동의 인지발달 과정 중에서 아동을 둘러싼 외부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들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어가 사용되는 점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Piaget이 제시한 ‘자기중심적 발화’보다는 ‘공공 발화(public speech)’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공공 발화는 아동의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타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관습 및 행위, 사고체계, 가치체계, 사회적 태도, 그리고 새로운 지식 등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학습자 내부에 내재화시키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 발화는 사적 발화 및 내적 발화로 전환되어 고등정신능력 발달의 기반이 된다.

<표 1> Egocentric speech에 대한 Piaget과 Vygotsky 비교

Piaget	Vygotsky
1. 인지능력이 낮은 아동의 자기중심적 사고 반영	1. 자기중심적이지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로 사용함
2. 타인을 고려하지 않음	2. 현재 자신의 발달단계를 넘어선 과업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됨
3. 성숙하면서 감소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청할 때 나타남. 이를 통해서 ZPD를 만들어 냄
	4. 내재화 시작을 의미함. 인간간 세계에서 인간내 세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내재화 과정이 끝날 때, 인간의 고등정신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2) 사적 발화(Private Speech) 사적 발화(Private Speech)와 내적 발화(Inner Speech) 내적 발화(Inner Speech)

Vygotsky에 의하면, 사적 발화와 내적 발화는 심리적 단계 또는 인간 내 단계에서 나타난다. 이들 발화의 공통적 특징은 아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를 듣지 못한다. 우리 성인들도 사적 발화와 내적 발화를 많이 생성하지만, 아동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과업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들 발화들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언어가 인간의 고등정신능력을 제어하고, 또한 인간의 정신이 주변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사적 발화에 대한 Piaget과 Vygotsky 간의 견해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2-2와 같다.

<표 2> Private speech에 대한 Piaget과 Vygotsky 비교

	Piaget	Vygotsky
1. 정의	인지능력이 낮을 때 나타남	자신과의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됨
2. 발달과정	성숙하면서 감소함	나중에 inner speech로 전환됨
3. P u b l i c speech와의 관계	어린이들이 사용함	능력있는 동료, 교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더 발달됨
4.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	사회적 맥락은 무의미함	학습자들은 사회적 유형, 행위, 관습, 사고 등을 내재화함. 그런 후, 고등정신의 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inner speech를 발달시킴

아동의 고등정신능력의 발달을 위해서 사적 발화는 다시 내적 발화로 전환된다. 사적 발화는 침묵에 가까워서 다른 이들은 이를 들을 수 없지만, 아동의 내면과 대화하는 특징이 있다. 아동은 자신의 내면세계와 대화를 하면서 사회적 단계에서 받아들인 사회적 관습 및 행위, 그리고 새로운 지식들을 내면화시키거나, 또는 주어진 과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내면에서 찾기 위한 매개체로 내적 발화를 사용한다. 따라서 내적 발화는 아동의 고등정신능력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보다 위에 있는 과업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발화를 내면의 자신에게 할 수 있다. “What is the best way?”, “Where to go?”, “What do I need to do?”, “What

do I want to find?”. 내면의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이전 단계의 인간간 단계에서 받아들인 새로운 지식체계를 내재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사고과정과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게(self-regulated) 된다. 따라서 일단 문제해결이 되면 내적 발화는 사라지게 된다.

3) 행위 이론(Activity theory) 행위 이론(Activity Theory)

Vygotsky 이론의 핵심은 개인을 둘러싼 외부환경(사회 · 문화적 요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있다. Leont'ev(1979)에 의하면, 행위 이론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 된다: 행위체계(activity system) 단계, 구체적 행동(action) 단계, 조작(operation) 단계. 행위체계에서 조작단계로 갈수록 인간의 행위는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영어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교수자의 기본 교수 방향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면, 이는 행위체계 단계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제중심 언어학습법(task-based language learning)과제중심 언어학습법(task-based language learning)이 사용된다면, 이는 구체적 행동 단계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어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요인들(시설 등)을 포함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의 정확한 정의 및 평가 방법 등의 시행 등은 조작단계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세 단계는 학습자 주위의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들 요인들 간에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위 모형에서 주체(subject), 도구(instrument), 대상(object)은 Leont'ev 이론 중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사용된 개념이고, 규칙(rule), 공동체(community), 노력 분담(division of labor) 노력 분담(division of labor)은 Engestrom의 이론에서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다. 영어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환경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주체는 학습자가 될 것이며, 도구는 학습자료, 교과내용, 동료 및 교사의 도움 등이 될 것이며, 대상은 교과내용의 이해가 될 수 있다. 규칙은 수업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규칙들, 예를 들어 교재를 모두 지참해야 한다든지, 수업시간에는 오른손을 들어 발표신청을 해야 한다든지, 다른 학생이 발표할 때는 조용히 경청해야 한다든지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공동체는 작게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내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교우관계, 특정 학급 및 학년, 학교 등이 될 수 있고, 넓게는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를 지칭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력 분담은 성공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 학습자 개개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영어발표를 한다든지, 역할극을 할 경우 학습자 개개인들이 실제 언어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을 지칭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Vygotsky 이론의 핵심은 개인을 둘러싼 외부환경(사회 · 문화적 요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Vygotsky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개인이 갖는 학습에

대한 동기(motive)를 매우 중요시하였으며, 동기가 궁극적으로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갖는 학습에 대한 동기는 개인의 과거 배경, 그리고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결부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학습자 개개인이 수행하는 학습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Vygotsky는 효과적인 학습자(effective learners)효과적인 학습자(effective learners)와 비효과적인 학습자(ineffective learners)비효과적인 학습자(ineffective learners)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동기를 사용하였다. Vygotsky에 의하면, 동기는 외국어 학습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언어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긍정적 / 부정적 경험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한 학습자는 교실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에 의해서 결코 낙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며, 동기가 부여된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와는 다르게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분명 다른 학습의 결과를 도출해 낸다. 따라서 학습자는 무엇보다도 학습에 대한 높은 동기를 갖게 될 때 긍정적인 학습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3. Vygotsky의 사회 · 문화 이론과 영어학습

1) 외국어(영어) 학습의 기본 원리

인지주의에서 바라보는 외국어 학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언어입력을 대상으로 언어규칙을 발견하고 형성해 나가는 개인적인 가설검증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매우 개인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Vygotsky의 이론은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고등정신능력의 개발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이때 기능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는 언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Vygotsky 이론은 외국어 학습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사회 언어학적인 능력의 배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 · 문화적 요인들이 강조되는 Schumann의 문화이식(acculturation)문화이식(acculturation)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Vygotsky 이론은 단순히 목표문화와 학습자의 자국 문화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맥락에서의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참여(participation)를 통해서 사회적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화이식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Vygotsky이론에서 바라보는 외국어 학습은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공동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완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언어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서 학습자

들은 사회적 맥락에서 동료 및 자신보다 언어능력이 위에 있는 동료 및 성인(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캐폴딩(scaffolding)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근접발달영역(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을 만들게 되면서 학습자의 현재 언어발달 단계를 초월하여 잠재발달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Vygotsky 이론과 문화이식 이론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Vygotsky 이론과 문화이식 간의 언어습득과정의 차이 비교

	Vygotsky 이론	문화이식(Acculturation)
공통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 문화에 완전 흡입될 수 있는 능력 2. 구 자아를 상실하고 새로운 자아를 재구성함 3. 언어능력은 특정 언어 공동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능력 습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함 2. 목표언어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목표언어를 성공적으로 배우기 위한 조건이 됨 3. 사회적 맥락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시됨 4. 자국 문화와 목표 문화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차이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언어공동체 사회 내의 규범에 따라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2. 목표문화 내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참여자가 됨 3. 의사소통 상에서 화자-청자 간에 존재하는 힘의 불평등, 권위 등을 인식함 4. 자국문화 경계를 넘어서 목표문화의 완전한 구성원이 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문화를 어느 정도로 이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결정하게 됨 2. 자국 문화와 목표 문화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왜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게 됨

그리고 인지주의에서 바라보는 ‘습득’과 Vygotsky이론에서 바라보는 ‘참여’라는 메타포(metaphor) 간의 차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 표 12-4와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습득의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인 반면에, 참여 과정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 습득과 참여의 Metaphor 비교

Acquisition Metaphor	Participation Metaphor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의 자아 확립 2. 언어습득은 언어의 규칙과 어휘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임 3. 언어습득과정은 결국 학습자의 인지발달로 귀결됨 4. 정보처리모형으로 설명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 자아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 확립 2. 언어습득은 목표언어 공동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는 것임

2) 상호협력적 상호작용

Vygotsky의 이론은 Swain(2000)의 상호 협력적 상호작용으로 더 구체화되었다. 상호 협력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학습자의 언어사용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목표언어의 출력이 증대된다. 둘째, 실제 언어사용을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이 설정한 언어규칙에 대한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의 발화를 통해서 자신의 언어발달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발화(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사고과정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즉, 상호작용적 언어학습은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사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언어발달 정도를 점검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잠재적 영역까지 언어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인간의 사고과정을 명확히 하는데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또한 인간의 사고가 언어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점에서 Vygotsky는 언어가 인간의 고등정신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매개체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Vygotsky는 상호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언어를 사용하여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언어적 표현)과 생성해 낼 수 없는 것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의 인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도움을 받기 위한 근접발달영역을 생성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학습자 자신이 생성할 수 없는 언어적 항목에 대한 도움을 받는데 더 많은 주의력을 집중하게 된다. 결국 상호 협력적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Swain(2000, p. 145)은 이 과정을 “collaborative dialogue is an important tool for language learning because it performs two functions: social(context) and cognitive(problem-solving).” 로 표현하였다.

3) 사적 발화(Private Speech)사적 발화(Private Speech)

Vygotsky가 바라본 사적 발화는 단지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내면적으로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기억, 주의집중, 내면화, 그리고 학습에 대한 통제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적 발화의 한 가지 특징은 외부인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의 사고과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외면적으로는 침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부단히 발화에 대해서 연습을 수행하는 매우 역동적인 상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Lantolf(2000)는 사적 발화는 초인지적 기능, 리허설(rehearsal) 기능, 그리고 외국어의 내재화 과정과 같은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특히 언어규칙을 내재화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Ohta(2000)와 Saville-Troike(1988)는 학습자들이 비록 외적으로 발화를 하지 않는 침묵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영어문장을 발화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사적 발화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Vygotsky에 의하면, 사적 발화는 다시 내적 발화(inner speech)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사고과정은 더욱 명확해 진다. 따라서 학습자의 사적 발화는 비록 외부자가 들을 수 없다고 해서 학습자의 내적 인지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보기 보다는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인지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4) Vygotsky가 바라본 화석화

학습자가 목표언어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중간언어로 굳어진 상태를 화석화(화석화)라 한다. 따라서 당장 언어적 오류가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때든지 학습자들은 오류를 생성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면, Vygotsky는 화석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가? Vygotsky에 의하면, 화석화는 학습자가 오랫동안 외국어를 학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과 같은 정도의 언어적 형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화석화로 정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Vygotsky가 바라본 외국어 학습은 목표언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목표언어 공동체 사회내에서 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따라서 특정 학습자의 언어발달 정도가 화석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목표언어 공동체 사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였으며, 어떻게 목표언어를 학습해 왔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Vygotsky는 학습자들이 고등정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단계(other-regulated stage)사회적 단계(other-regulated stage)에서 심리적 단계(self-regulated stage)심리적 단계(self-regulated stage)로 전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전이 단계가 지체될 때 화석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상호작용 단계에서 충분한 정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화석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Vygotsky의 견해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학습자가 상호작용 중에 주어지는 언어입력 또는 상호작용적 실마리(clues)에 무관심하게 될 때 화석화 현상이 나타난다. 상호작용 중에 상대방은 도움이 필요한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상호작용 중에 이러한 표시에 무관심하게 되면 언어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스캐폴딩을 받지 못해 결국 화석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화석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Vygotsky는 학습자들이 상호작용 과정 중에서 정확하게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을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현재 언어발달 단계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표현할 수 없는 것 간의 차이점을 보완할 수 있는 외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정확한 언어적 표현을 생성하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도움(스캐폴딩)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용이하지 않을 때 화석화(화석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Vygotsky는 단지 학습자 내부에서 인지발달이 일어나는 정적인 존재의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학습자와 학습자를 둘러싼 외부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습자는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영향을 주

고받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고등정신능력을 갖추게 된다. 학습자가 획득하는 자율성 및 자기통제 등과 같은 능력들은 생물학적으로 파생되고 결정되기 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특히 Vygotsky가 바라보는 학습자는 학습자 자신이 수동적인 존재이기 보다는 학습자를 둘러싼 외부환경, 특히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자신의 언어학습을 주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학습자로 이해한다. 따라서 영어 학습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교사 요인, 학습자 요인, 교육과정에 국한하여 생각하기 보다는 교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교사 간의 상호작용, 상호협력을 통해서 수행되는 과업, 과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화 기회의 극대화, 학습자의 현재 발달 정도를 초월하여 잠재발달영역까지 이루어지는 발달, 사적 발화의 증대 등은 학습자의 자율성 증대와 함께 학습의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으며,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을 함축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Vygotsky의 이론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영어학습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